

공적개발원조(ODA), 부패 및 그 상호작용이 국제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DA 수원국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Impac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Corruption and Interaction effect on Global Poverty:
A Case of ODA Recipient Countries

김 흥 주(Kim Heung Ju)**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what spurs poverty as international problems and then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plan for dealing with poverty. Therefor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corruption are selected as main variables and this study tests the hypotheses how ODA, corruption effect on poverty and interaction effect whether to decrease level of international poverty.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show that ODA, corruption are comparatively make influence on poverty reduction. First, testing results of hypotheses presents that multilateral assistance make positively influence per-capita GNI of recipient countries and bilateral assistance has significance positively on poverty gap and poverty rate of recipient countries. Second, corruption make negatively influence per-capita GNI, poverty gap of recipient countries. Third, ODA interacting with Corruption decreases the effect of global poverty reduction. That is, it produced an effect opposit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on global poverty in ODA recipient countries.

Key word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Corruption, Poverty

1. 서론

빈곤(poverty)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부족상태를 일컬으며 이는 의·식·주 뿐만 아니라, 영양, 식수, 보건, 교육 등 여러 가지 상태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가난하고 배고픈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필요한 물질과 돈의 부족 상태와 선택과 기회의 부족까지 이르는 것으로 논의된다(김관석 외, 2010). 빈곤의 문제는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5336)

**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최빈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도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빈곤의 상태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특히 빈곤의 문제는 저개발국가에서 극심한 문제여서 절대빈곤(absolute poverty)으로 논의할 때가 많다.¹⁾ 따라서 저개발국가의 빈곤수준을 위해서는 빈곤선(poverty line)을 정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 빈곤선은 특정국가에서 적정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빈곤선의 기준은 1달러 25센트로 논의되어진다.²⁾ 이러한 빈곤문제는 전 세계 국가의 평화와 안녕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동원, 2008). 따라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저개발국의 심각한 채무문제, 식량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환경, 여성, 인권, 평화, 발전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후반 이후 높아지게 되면서 최근에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2000년에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세계의 빈곤과 질병, 성차별과 아동사망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고, MDGs의 실천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002년 UN개발재원회의(UN Conference on Development and Finance)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등을 연이어 개최하여 개발재원 확대는 물론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구정우·김대옥, 2011). 이러한 UN의 노력에 발맞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³⁾도 모든 공여국들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통한 인류의 공존과 번영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순학·이홍식, 2012). 그러나 세계 각국이 제공하는 ODA는 수원국에 대한 빈곤문제의 접근은 “공여국의 이해”의 측면에서는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ODA의 핵심적 동기로 파악되어 왔으며, “수원국의 필요”의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인도적

- 1) 절대빈곤을 일반적으로 논의할 때는 기본적인 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나 금전의 절대적 부족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극심 빈곤(extreme poverty)라고 칭하기도 한다(빈곤문제 국제개발연구원, 2013).
- 2)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2008년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1달러 25센트의 빈곤선이 현재 널리 인용되고 있는 편이다(Ravallion et al., 2009).
- 3) 1960년 개발원조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으나, 1961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약 발효와 함께 명칭을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로 변경하여 OECD 산하 위원회가 되었다. 설립 목적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개발원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개발 과정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1961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를 포함하여 벨기에·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포르투갈·영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노르웨이(1962)·덴마크(1963)·오스트리아·스웨덴(1965)·오스트레일리아(1966)·스위스(1968)·뉴질랜드(1973)·핀란드(1975)·아일랜드(1985)·에스파냐(1991)·룩셈부르크(1992)·그리스(1999) 등이 가입하였다.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차원의 지원이 ODA의 주된 목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빈곤완화를 위한 ODA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원조의 주체에 따른 다자간 원조와 양자간 원조, 그리고 상환방식에 따른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국가에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차원적인 국가의 환경에 따른 논의라고 파악된다. Economides et al.(2004)은 ODA가 각국의 부패수준에 따라 그 효과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함을 논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원조의 효과에 조건부가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원조의 올바른 정책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Burnside & Dollar, 2000).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부패는 뿌리 깊게 내제되어 있으며, 원조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료들에게 주는 특혜와 지대 추구 현상(rent seeking)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원국의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중에서 ODA 총액과 부패수준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이 변수들이 수원국의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과연 ODA 효과를 얼마나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국내·외의 ODA와 부패, 그리고 그 효과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통하여 빈곤감소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그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1) 공적개발원조의 개념 및 유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무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으로 정의하고 있다(홍승기·김충호, 2011). 이러한 공적개발원조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으로 구성된다. 즉, 공적개발원조는 정부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 또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증여 및 양허성 차관이다. 여기서 증여는 무상원조라고도 하고,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라고도 지칭한다(김정현, 2008).⁴⁾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의 지원 형태는 시기적으로 국제사회에 다양한 정책적 변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나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협력주체에 따라 다자(multilateral), 양자(bilateral), 그리고 상환여부에 따라 무상지원(grant)과 유상지원(loan)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군사적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과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공적개발원조에 포함되지 않는다(OECD/DAC, 2009). 공적개발원조는 다음 <표 1>과 같이 공여협력주체, 자금의 상환 여부, 원조의 지원범위, 협력 형태 등에 따라 각각의 경우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김판석 외, 2010).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공적개발원조(ODA)의 유형

분류		내용
협력주체	다자간 원조	원조 교섭국이 공여국과 수원국 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형태
	양자간 원조	3국 이상의 국가들이 관여하는 국제기구를 통한 형태
상환여부	무상원조(grant)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원조형태
	유상원조(loan)	일정 기간 경과 이후 상환을 전제로 하는 원조형태
협력형태	자금융조	자본의 공여 형태에 의한 원조
	기술원조	기술의 공여 형태에 의한 원조
지원범위	프로젝트 원조	구체적인 사업과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는 원조형태
	프로그램 원조	경제전반의 안정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안정화 계획 추진

출처: 강화원(2006); 김판석 외, (2010: 221) 재인용

2) 공적개발원조(ODA)의 이론적 관점

공적개발 원조(ODA)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오늘날의 ODA의 참여는 국가의 선택이며 특히, OECD 가입국가의 경우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에 있어서 도의적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이행이 OECD 가입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ODA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발전이라는 인간중심(human-centered)의 관점에서 출발하며 인간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GTZ, 2001; CIDA, 2002; AusAid,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는 국가별 중점 정책목표에 따라 그 원조규모, 형태, 배분방식, 주요 협력국가, 그리고 지원분야 등 정책 운용체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ODA의 목적에 따른 다양한 이론적 논의도 제시되고 있다. 즉, 국가의 공적개발원조(ODA)는

- 4) 일반적으로 공적개발원조는 지원형태별로, 양자간 원조(bilateral assistance)와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ssistance)로 분류된다. 양자간 원조는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지칭하며, 다자간 원조는 공여국의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이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상환의무 여부를 기준으로 수원국이 공여 받는 개발 원조를 상환해야 하는 유상원조(loan)와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grant)로 분류될 수 있다(이주영, 2007: 376; 손혁상·최정호, 2008).

개별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존의 국제정치·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정미경·김동열, 2010). 이러한 ODA의 이론적 관점은 현실주의, 이상주의, 구조주의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음 <표 2>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특징에 관한 이론적 검토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ODA 특징에 관한 이론적 관점

구분		현실주의	이상주의	구조주의
특징	원조목적	국가안보	상호호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해소
	추구방법	공여국의 독자적 결정강조	공동의 원조 노력	후진국 수요에 따른 방식
	공여방식	양자 원조방식	국제기구	국제기구
	지리적 배분	공여국의 국가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	공평분배	최빈국에 중점

출처: 주해연(2012: 8) 재구성

먼저 Morgenthau(1962), Gillpin(1987), Hook(1995) 등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공여국의 국가정책상의 필요성에 따라 경제적 동기에서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을 논의하였다.⁵⁾ 그에 반하여 Lumsdane(1993) 등은 이상주의적 동기를 논의하였으며 현실주의와는 달리 원조의 동기를 국익을 최소화하고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탈출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동기를 강조하였다.⁶⁾ 마지막으로 구조주의적 동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각 국가들의 경제정책, 정치적 특성 보다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구조로부터 발생한다고 논의한다. 즉, 공여국의 대외원조가 수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공여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5)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 Schraeder et al.,(1998)은 미국은 이데올로기와 동맹관계 등 정치적 동기, 일본은 경제적 동기, 스웨덴은 인도적 동기가 원조정책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밝혀냈다. 미국은 국제정치체제하에서의 역할 때문에 국제질서, 자본주의 체제, 자국안보 등의 유지를 원조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로 삼았다. 일본은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우산아래 있었기 때문에 원조정책에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대신 아시아에서 지경학적(geo-economical) 이익을 추구하는 신중상주의적 원조전략을 채택하였다. 스웨덴은 국내적으로는 사회체제내의 연대주의(solidarity)전통과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갖고 있어 인도주의적 원조를 중시하였다.

6) 이상주의에서는 현실주의와 달리 국제사회가 무정부상태가 아니며 국내와 마찬가지로 도덕, 여론, 국제법, 그리고 제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에 의해 영구적인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주해연, 2012). Lumsdane(1993)은 대외원조의 동기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만을 기초로 해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조에서 목적과 평등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원조의 방향성, 즉 원조의 목적을 결정하는 결정요인으로서의 식민지의 역사, 수원국의 민주화 정도, 소득수준 등이 있다(Lumsdaine, 1993: 30-60). 이러한 주장에 대해 Alesina & Dollar(2000)는 Lumsdaine이 원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과 원조의 실질적인 흐름에 대한 상관관계에 관해 매우 간단한 연관관계만을 찾아냈으며, 다른 설명변수들과의 영향에 대한 연관관계는 찾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Alesina, A. & D. Dollar, 2000: 33-63).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주해연, 2012). Odedokun(2004)의 논의에서도 역시 세계체제이론을 근거로 한 연구에 있어서 원조 공여국이 공적, 사적으로 수원국의 모든 재원을 통제하여 이들 국가를 공여국의 국가들에 종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⁷⁾

2. 공적개발원조(ODA), 부패, 그리고 빈곤과의 관계

1) 공적개발원조(ODA)와 빈곤⁸⁾

1970년대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이후 1980년대에는 거시경제 안정화에 열중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경제효율성과 시장개혁에 관한 문제로 관심이 옮겨갔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다시 빈곤 감소가 주된 의제로 부활하게 되었다(Finn Tarp & Peter Hjertholm, 2000; 임을출 역, 2009). 즉, ODA를 통하여 빈곤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된 의제가 되었다. 이와 함께 원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났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도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들어 선진 공여국들은 빈곤해소를 위한 원조의 목적에 중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신명섭, 2004).

개발원조의 빈곤감소에 있어서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가의 연구에 있어서 수원국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한 초기 연구들은 원조와 경제성장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이었다(이경아·홍기석, 2012). 이러한 초기의 연구에 있어서 Papanek(1973)은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원조, 사적 자본, 기타 자본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자본의 흐름이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원조의 유입이 수원국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Levy(1988)에 의하면 국가간 원조가 집중되었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원조와 1인당 소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에 반하여 원조의 효과를 부정하는 연구결과 들이 있다. Mosley(1987)는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원조와 GNP 성장률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음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유입된 원조가 수혜국에서 비생산적 지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Boone(1996)은 117개국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개발원조가 경

7) 공여국은 수원국에 있어서 내부지향적이며 경제자립의 기반에 대한 육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장위주의 외향적이고 수출지향적인 개발전략을 실행하도록 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주의는 바로 개발도상국 내부의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단편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한다(주해연, 2012).

8) 빈곤(poverty)에 대한 개념은 각각의 사회구성원의 가치판단이 내재되어 있어 상당히 다차원적이며 이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과거 빈곤은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식주가 부족한 상태 또는 최저 생계를 위해 필요한 소득(income)과 부(wealth)의 결핍과 같은 물질적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이해되었으나, 최근의 빈곤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그 개념을 ① 절대적 빈곤, ② 상대적 빈곤, ③ 주관적 빈곤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Booth, 1899; Townsend, 1974; Rainwater, 1974; Rowntree, 1901; World Bank, 2002; 이흥규, 2003; Iceland, 2005; 김미곤, 2006; 최세현 외, 2007; 김교성 외, 2008; 이상록·백학영, 2008; 임채홍 외, 2011).

제성장률이나 인간 개발지수(HDI)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World Bank(1998)과 Burnside & Dollar(2000)는 원조의 효과에 조건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원조의 올바른 정책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⁹⁾ 2000년대 들어서 원조를 유상과 무상원조로 분리한 연구가 Sawada, Kohoma & Kono(2004), Djankov, Montalo & Reynal-Queral(2004), Iimi & Ojima(2005)등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개발원조에 있어서 그 대부분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가 원조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Sawada et al.,(2004)의 분석에 따르면 총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유·무상 원조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유상원조가 경제성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무상원조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Odedokun(2004)은 무상원조가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 퇴치, 극빈자 대상 원조,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수준의 현장지원에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반적인 경제개발 효과에 있어서는 유상원조의 우월성이 나타나지만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무상원조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가 상호 보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유·무상원조의 효과에 관한 연구와 함께 다자간 원조와 양자간 원조의 효과에 관한 연구 역시 논의 되었는데, Cassen(1994)은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원조의 동기, 특징 그리고 조건에 따라 두 가지 구성의 중요한 차이를 설명하고 하고 있다. 공여조건과 특징에서 공여의 동기에 기인한 바, 원조 프로그램의 특징과 원조 패키지의 내용, 그리고 원조와 관련된 조건은 양자와 다자간 원조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Burnside & Dollar(2000)는 다자간 원조가 양자간 원조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논의한다. 그 이유는 좋은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에 일반적으로 할당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Rajan & Subramanian(2005)은 이러한 가정을 검정하는데 다자간 원조가 양자간 원조보다 명백히 덜 정치적인에 관한 것을 주장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수원국에 있어서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Minoiu(2006)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국가에서의 원조는 좋은 원조이며 다른 것에 의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하게 양자간 원조보다는 다자간 원조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Ram(2003)은 Burnside & Dollar 모형과 데이터를 통하여, 양자간 원조가 국가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오히려 다자간 원조가 부정적이거나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eady(2008)는 양자간 원조는 공여국의 지정학적 이익으로 인하여 냉전시기에는 수원국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¹⁰⁾ 냉전시기 이후 56개국을 대상으로 1970-2001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9) 이러한 주장은 Hansen & Trap(2001)에 의해 비판적으로 반박되었는데, 이들의 의견은 원조가 성장률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좋은 정책 등으로 인한 정책 환경에 의해 의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 Berthelemy & Tichit(2004)는 앞서 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역시 냉전시기의 끝에 자원의 할당에 대한 편의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무역파트너의 기호에 맞춘 식민지적 연대에 근거하

결과 양자간 원조가 더욱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obba & Powell(2007) 역시 정치적 엘리트에 할당된 원조와 비엘리트에 확대된 원조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정치적 영합이 이루어진 것 보다 비 영합적인 원조의 확대는 수원국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와 함께 양자간과 다자간 원조 사이의 보다 차별성 있는 영향을 위한 논쟁은 조건부의 효과성과 특징 혹은 주어진 원조의 형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¹¹⁾ 앞선 논의에서 원조는 그 주체와 형태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냉전시기 이후 현재까지 다자·양자간 원조를 중심으로 ODA가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공적개발원조(ODA)가 수원국의 빈곤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부패와 빈곤

부패와 빈곤의 관계에 있어서 부패는 빈곤의 원인이 되고 빈곤을 완화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이 제기되고 있으며 1993년 국제투명성기구(IT)의 설립과 함께 빈곤과 부패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문헌은 1990년대 중반으로부터 더욱 발전되어 왔다. 부패는 빈곤문제에 있어서 주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로서 논의 되어 왔는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보다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으며 빈곤문제의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부패의 부정적 기능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 대안의 부재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를 통한 부정적 기능은 각 국가의 빈곤감축을 위한 노력에 효과를 저감시키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Ogboru, 2010). Neigh et al.,(2010)은 부패와 빈곤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패는 공적영역에 있어서 경제성장을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빈곤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Gupta et al.,(1998)은 높은 수준의 부패는 소득 불평등과 빈곤 수준을 높이게 됨을 지적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부패가 경제적 성장을 늦추게 되고 부유하고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의 편의에 맞추어 세금정책이 왜곡되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줄어들게 되며, 공공지출을 감소시키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 11) 공적개발원조의 배분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은 대개 다음의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수원국 필요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공여국 이익모델이다(McKinlay & Little, 1979; Bandyopadhyay & Wall, 2007). 수원국 필요모델은 원조의 목적이 수원국의 자원 부족을 보완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공여국 이익모델은 원조의 목적이 공여국의 정치적·안보적 이익과 투자와 교역 등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Maizels & Nissanke, 1984). 이들의 연구는 다자원조(multilateral ODA)가 수원국 필요모델을 잘 반영하는 반면에 양자간 원조(bilateral ODA)는 공여국의 이익모델을 잘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타파가 원조의 목적으로 강조됨에 따라서 공여국은 점차 원조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강조하게 되었다(이계우, 2011).

가난한 자에 대한 교육의 수혜에 대한 기회를 줄어들게 든다고 지적한다.¹²⁾ Dincer & Gunalp(2008)는 소득 빈곤과 불평등에 관해 각기 다르게 측정한 시계열과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패가 빈곤과 소득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부패의 증가가 소득불균등과 빈곤을 증가시며 게다가 가난한 국가에서는 부패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이 역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논의한다. 여기에는 불평등 역시 높은 부패의 수준에 기여한다는 측면의 논의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Husted, 1999; Paldam, 2002).

You & Khagram(2005)은 부패와 빈곤의 관계에 있어서 역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제공하고 하고 있는데, 가난한자는 부유한자를 모니터링 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끔 한다고 지적한다. 빈곤에 대한 부패의 영향을 고려할 때, Chetwynd & Other(2003)는 부패가 정치제도, 시민참여를 약화시키고 낮은 질의 공적 서비스와 인프라를 이르게 한다고 지적한다. 즉, 가난한 자는 건강과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적 지출의 삭감으로부터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며 결국 부패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은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정부의 부패와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적 가정은 부패와 빈곤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며 이는 수많은 경험적 연구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이러한 검토는 몇몇 연구는 부패와 빈곤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¹³⁾¹⁴⁾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부패한 국가일수록 빈곤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 공적개발원조(ODA)와 부패

부패가 실제 세상에서 감지하기 더욱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Tanzi,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공적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12) 유사하게 Rose-Ackerman(1978)은 부패가 경제적 편익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부유한 자의 편익을 맞추어 나타나게 하여 결국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S. Wei(1998) 역시 빈곤이 부패에 의하여 더욱 영구적으로 악화되는 개념을 제기한다. 즉, 부패는 시골뿐 아니라 도시지역의 부패 또한 악화시키는데, 빈곤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권한이 가진자에 비하여 덜하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는 수단을 역시 적게 가진다고 설명한다.

13) Gupta et al (1998) 등은 부패와 빈곤사이에 정(+)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발견하였으며, 이는 부패가 빈곤을 악화시킨다는 것으로서 이해된다.

14) Chetwynd et al.,(2003)은 부패는 스스로 빈곤을 만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할 시 부패가 경제성장 요소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은 부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이다. 따라서 부패의 증가는 경제적 투자를 감소시키고 시장을 왜곡시키게 되어 결국 공정한 경쟁에 장애가 되며, 기업의 활동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결국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Kaufmann, 1997). 그렇다면 과연 ODA가 수원국의 부패와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의 질문에 있어서 Alesina & Dollar(2002)는 거의 2/3의 외국인 원조가 정부의 소비로 나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기금은 관료의 영향 하에서 배분되어지게 되는데, 몇몇 원조국의 분배는 부패로 인하여 그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Tavares, 2003). 그리고 원조가 부패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전의 경험적 연구에서 원조 혹은 ODA와 국가의 민주적 성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Goldsmith, 2001; Stone, 2004; Olsen, 1998; Dunning, 2004; Ear, 2007; Gokcekus & Knorich, 2006; Knack, 2001; Knack & Rahman, 2007).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몇몇 학자들은 ODA와 부패사이에 정(+)으로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즉, ODA가 부패를 잠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고, 수혜국의 거버넌스에 해가된다는 점에서 Knack(2001; 2004)의 연구는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¹⁵⁾ 그리고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ODA를 받는 국가일수록 그들의 민주적 관료성과를 악화시키며, 부패수준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nack, 2001; 2004; Knack & Rahman, 2007). Knack & Rahman(2007)은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료의 질에 대한 몇 가지 결정요인의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공적서비스의 질이 GNP 대비 국가의 ODA 비율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Knack & Rahman, 2007). 그에 반하여 어떤 학자들은 오히려 ODA가 거버넌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패의 감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Goldsmith, 2001; Travares, 2003; Dunning, 2004). 이러한 논의는 공적개발 원조에 따라서 민주적 발전과 부패감소를 이끌며 발전국가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지 못한 전문성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책임성이 국제적 감시로 말미암아 향상되고 이는 국가가 덜 부패하고 효율적이도록 유도 한다는 것이다.

몇몇 경험적 연구들은 ODA가 거버넌스를 향상시킨다는 개념을 지지하기 위하여, Goldsmith(2001)은 아프리카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ODA의 증가는 높은 수준의 민주적 성과 그리고 경제적 자유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Taveres(2003)는 경제발전, 석유자원 그리고 정치적 권리와 같은 요소를 통제할 때, ODA는 부패를 제거하는데 보다 강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부패 혹은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의 질과 같은 성과변수에 있어서 ODA에 효과에 대한 분명한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 합의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ODA와 부패사이의 관계는 보다 혼합적인 경험적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발전국가에서 높은 부패 인식수준은 ODA와 유의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Economides et al.(2004)은 1975년에서 1995년 사이의 75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조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원조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료들이 주는 특혜와 추구현상(rent seeking)으로 인하여 원조의 효과가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¹⁶⁾ 앞선 논의에서 보듯이 원조와

15) 원조종속이 증가하면(ODA/GDP 혹은 정부소비의 비율로서 ODA에 의하여 측정되는 여부), 수혜국은 그들 자신의 행동조치에 있어서 책임성을 덜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의지로 인해 정부 제도가 약화되고 경제정책을 위한 필수적인 보상과 원조에 대하여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의 부패를 위한 유인역시 증가하게 된다(Knack, 2001; 2004).

부패의 관계는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DA)가 보다 부패한 수원국에 있어서 관료의 지대 추구적 노력과 부를 보다 부유한 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빈곤완화를 위한 그 효과가 상쇄¹⁷⁾될 것이라는 가설을 논의하여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3 부패가 심한 국가의 공적 개발원조(ODA)는 수원국의 빈곤완화 효과를 감소시킨다.

III. 연구 설계

1. 자료수집 및 분석모형 설정

1) 자료수집

본 논문의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이며 빈곤의 측정은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연구에 포함된 1996년부터 2011년을 기준으로 각각이 소득지수, 빈곤갭, 빈곤율로 한다. 그러나 빈곤수준을 나타내는 각각의 지표에 있어서 빈곤갭과 빈곤율의 경우 상당수의 국가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숫자에 차이를 보였으며,¹⁸⁾ 종속변수인 빈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은행(WB)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로 제시한 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 인플레이션, 산업부가가치, 도시화 정도,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의 경우는 세계은행(WB)의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였다.

2) 분석모형 설정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국가개발원조(ODA)사업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로 설정

16) 원조는 관료단체를 확장시키며, 엘리트집단을 부유하게 만들고, 부패 한 정권을 유지시키며, 수원국가들로 하여금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에 시달리게 하며, 농산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농가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네덜란드 병이란 경제학 용어 중 하나로서 논의되며 주로 자원 부국이 자원의 수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지만 결국 물가와 통화 가치상승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쇠퇴해 결국 경제 침체를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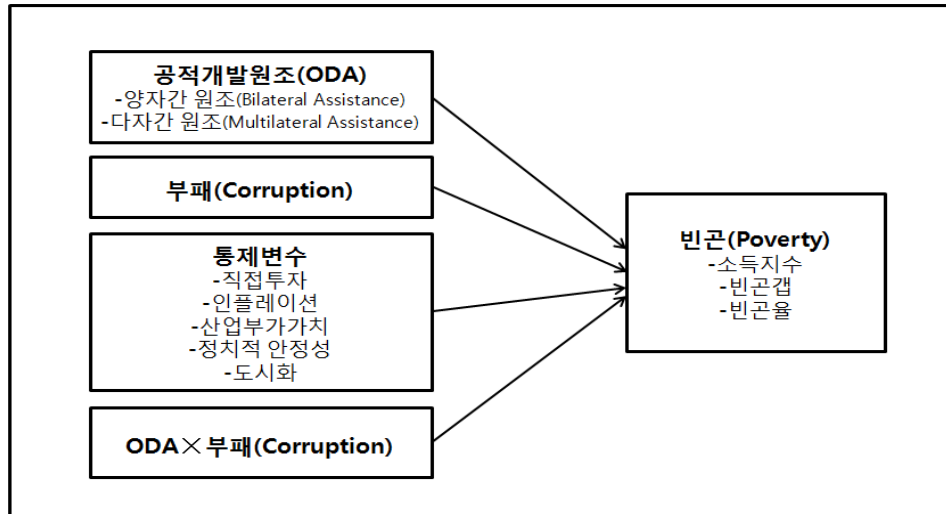
17) 상호작용에 의해서 공적개발원조(ODA)의 빈곤문제에 영향을 완화 또는 감소시키는 상쇄효과(interference effect)나 우호적인 환경으로부터 기회를 얻는 상승효과(synergistic effect) 혹은 강화효과(reinforcement effect)를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설진배, 2011).

18) 본 연구는 1996-2011년 동안 시간 갭(gap)이 있는 불균형 패널데이터로서 소득지수 기준 94개의 수원국 대상, 빈곤갭의 경우 58개의 수원국 대상, 빈곤율의 경우 73개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하였으며 수원국의 빈곤¹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자간 원조(Bilateral Assistance),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ssistance), 각 국가의 부패수준, 그리고 통제변수로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인플레이션, 산업부가가치, 정치적 안정성, 도시화 수준이 빈곤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추정하기 위한 패널 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²⁰⁾

패널회귀 선형 모형에 있어서 오차항 μ_i 을 고정효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확률효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추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고정효과 모형은 패널개체별로 고정되어 있는 모수로, 확률효과모형에서는 확률분포에 따라 다르게 된다. 고정효과 모형인지 확률효과 모형인지 판단할 때 일차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데이터에서 패널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오차항 μ_i 에 대한 추론이다(민인식·최필선, 2009).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FE)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RE)에 있어서 추정 모형의 선택은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χ^2))을 통하여 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하우스만 검정결과 $H_0: cov(x, u_i) = 0$ 의 귀무가설에 대하여 p값이 0.01보다 크기 때문에 1%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어 확률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는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RE)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틀



19) 본 연구에서의 빈곤지수는 소득지수(1인당 GNI), 빈곤갭(poverty gap), 빈곤율(poverty rate)로 구성하였다.

20) 빈곤($poverty$) $_{i,t} = \alpha + \beta_1 \ln 양자간원조(bilateral)_{i,t} + \beta_2 \ln 다자간원조(multilateral)_{i,t} + \beta_3 부패(corruption)_{i,t} + \beta_4 \ln 직접투자(FDI)_{i,t} + \beta_5 인플레이션_{i,t} + \beta_6 산업부가가치_{i,t} + \beta_7 정치적안정성_{i,t} + \beta_8 도시화_{i,t} + \beta_9 bilateral*corr_{i,t} + \beta_{10} multilateral*corr_{i,t} + u_i + \epsilon_{i,t}$
(i, t는 각각 i연도의 t는 ODA 수원국을 의미함)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원대상국의 빈곤지수이다. 빈곤지수란 한 사회(국가) 전체의 빈곤의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서 낮은 소득, 낮은 교육과 건강상의 취약함(vulnerability), 무력함(powerlessness)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빈곤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득과 연관이 깊으며 종종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으로 측정되기도 한다(Chetwynd, et al., 2003).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빈곤지수는 빈곤율(poverty rate 혹은 head-count ratio)로서 이는 전체 인구 가운데 빈곤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빈곤지수로서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²¹⁾의 측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이 빈곤의 측정방식은 전체 인구를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2분법으로 나누어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또 다른 하나의 빈곤지수인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은 빈곤율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는데, 이는 상대적 빈곤²²⁾을 측정할 때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빈곤갭은 실제소득이 빈곤선을 얼마만큼 미달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지표가 가지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저소득층의 소득은 그대로 있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전체사회의 총소득은 역시 증가하므로), 빈곤갭 비율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도 빈곤은 감소한다”(Kundu & Smith, 1983)는 결론이 가능하다.²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빈곤지수에 대한 다양한 측정방식을 가지고 소득지수는 1인당 GNI, 국제적 수준의 빈곤선으로 측정한 빈곤갭(poverty gap)은 국제적 수치의 평균 1.25\$ 이하의 빈곤선으로부터의 부족분으로 파악하였으며, 국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율(poverty rate)은 전체 인구대비 빈곤선 이하(1.25\$ 이하) 인구수 비율로 파악하여 구성하였다.²⁴⁾ 그리고 이는 세계은행(WB)에서 매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였다.

21)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정한 일정선보다 적게 가진 것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자원을 확보하기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가장 오래된 개념이다(Booth, 1899; Rowntree, 1901; 김교성, 2008). 즉,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정한 생활수준과 기본 욕구,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대적인 양적기준(일반적으로 소득)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한 상태를 빈곤으로 정의한다. 특정 국가가 자국의 빈곤관련 정책을 위해 설정한 기준도 이와 관련된다(최세현 외, 2007).

22) OECD는 중위 가구소득의 40~60% 수준을 상대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빈곤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자의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23) 물론 이는 절대적 접근방법에 의해 빈곤선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상대적 접근방법으로 빈곤을 정의한다면 비 빈곤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전체사회의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 역시 상승할 수 있어서 빈곤갭 비율이 반드시 감소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24) 종속변수인 빈곤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소득지수는 그 값이 높을수록 빈곤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빈곤갭과 빈곤율은 그 값이 높을수록 빈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1) 공적개발원조(ODA)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여국이 수원국에 지원하게 되는 공적개발원조(ODA)로써 공적개발원조 지원액으로 측정 하였다. 특히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양자간 지원액과 다자간 지원액을 통한 빈곤감소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공적개발원조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공여받은 개발원조에서 과거 공여받은 공적개발원조 중 당해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공적개발원조의 순 공여액(Net Disbursement)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환금액과 관계없이 공여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조액이 수원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수원국이 공여국에게 공여 받은 총 공여액(Gross Disbursement)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연구를 위하여 논의되는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와 다자간 공적개발원조는 세계은행(WB)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각 국가마다 공여받은 원조액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원조액에 로그(log)값을 취하였다.

(2) 부패(Corruption)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있어서 또 다른 주요변수인 각국의 부패수준은 그 정의와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부패를 명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부패는 각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부패의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부패가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게 되는데, 어떤 국가에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선물이 부패로 보기 어려우나 다른 국가에서는 그러한 선물 또한 부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김태은 외, 2008). 이러한 부패의 수준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매해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로써, 부패 연구에서 경험적 연구를 위하여 실제 부패 경험과 같은 객관적 지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Pazmandy, 2011; 박홍식, 2011), 대부분의 경우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한다. 최근 2012년 기준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176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으며 매해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패 측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가장 공인되어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고 있는 부패인식지수(CPI)를 활용하였다. 부패인식지수(CPI)는 10점 만점으로, 부패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게 된다. 반면에 0점은 비즈니스 거래가 전적으로 뇌물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변수의 변환(10점-원자료 값)을 통하여 숫자가 증가할 시 부패가 증가하는 의미를 가지도록 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인플레이션, 산업부가가치,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도시화 정도로 파악하였다. 첫째, 외국인 직접투자와 국가의 경제성장과의 인과적 관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Chowdhury & Mavrotas(2003), Hansen & Rand(2006) 등의 학자들은 FDI와 경제성장간의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검정하였으며 그중 경제성장에 있어서 FDI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경제성장의 인과적 관계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FDI 총액으로서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총액에 관하여는 역시 세계은행(WB)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각 국가마다 해외직접투자의 총액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원조액에 로그(log)값을 취하였다.

둘째,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낮은 경제성장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다른 측면으로서 빈곤에 있어서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즉, 인플레이션은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측면의 하나로 나타나며(Negin et al., 2010), 물가의 가격 상승은 실질임금은 저해시키고 부유한 사람의 것보다 가난한 자의 자산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은 국가의 성장을 제약하고 그러한 효과는 경제적인 거래를 위하여 자금을 덜 사용하는 빈곤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²⁵⁾ 이에 본 연구에는 인플레이션이 거시 경제적 불안정을 나타내며 빈곤을 악화시키는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율에 관하여는 역시 세계은행(WB)의 자료를 활용하여 GDP 디플레이터²⁶⁾의 상승률 의하여 측정되었다.

셋째,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빈곤의 완화 및 고용창출 그리고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산업의 미발달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절대적인 부족은 국가의 빈곤을 야기할 수 있으며(고가영·이근태, 2012), 저부가가치 산업은 내수시장의 빈약, 소비의 양극화 심화, 과다경쟁 지속 등으로 신 빈곤층을 양산하기 쉽다(이병희·강기우,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일수록 빈곤이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산업부가가치에 관하여는 역시 세계은행(WB)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산업부가가치의 성장률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근거해서 산출되었다.

넷째, 정치적 자유와 그 안정성은 수원국이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 추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정치적 안정을 통하여 수원국은 빈곤층의 정책결정, 예산 우선배분, 그리고 정치와 행정과정에서 참여가 프로그램 설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빈곤층이 토지, 노동,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보다 가능하게 해주며 그들이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어 주게 된다는 것이다(Girishankar et al., 2002). 따라서 수원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은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빈곤완화 정책을 보다

25) 안국신 외(1995)는 1965-1993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인플레이션은 비록 유의성이 크지 않지만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26)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와 실질 GDP사이의 비율을 구하는 것으로 (명목GDP/실질GDP)*100으로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가 커졌다는 것은 기준년도에 비해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안정성의 측정에 관하여는 역시 세계은행(WB)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적 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며 10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화는 빈곤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 논의되기도 한다. 즉 몇몇 학자들은 도시화의 어떤 형태는 빈곤에 긍정적인 수 있다고 믿으며 통계적으로도 빈곤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Ooms, T., 2006). 이는 세계의 거의 75%의 빈곤층이 시골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화의 측정에 관하여 수원국에 있어서 전체 인구 대비 도시에 사는 인구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역시 세계은행(WB)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사용한 변수의 출처 및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변수의 측정 및 출처

측정항목			변수의 조작화	단위
독립 변수	ODA	양자(Bilateral)	log(양자간 원조액)	US\$
		다자(multilateral)	log(다자간 원조액)	US\$
	부패지수(Corr)		각 국가별 부패점수(1-10점) ²⁷⁾	index
통제 변수	외국인 직접투자		log(외국인 직접투자액)	US\$
	인플레이션		(명목 GDP/실질 GDP)/100	%
	산업부가가치		(총 산출량-투입량)/GDP	%
	정치적 안정성		0-100점	index
	도시화		도시인구/전체 인구	%
종속 변수	소득지수		1인당 GNI	US\$
	빈곤갭 ²⁸⁾		$\frac{1}{N} \sum_{i=1}^N \left(\frac{z - y_i}{z} \right)$	%
	빈곤율		빈곤선 이하의 가구(인구)/전체가구(인구)	%

IV. 실증적 조사결과 분석

1.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통

27)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부패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지수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28) 빈곤갭은 0-100%사이에 있으며 100%는 매우 극심한 빈곤으로 소득이 0을 의미한다. 여기서 빈곤갭지수의 측정은 N은 빈곤선 아래의 빈곤가구 총 인구를 의미하고 z는 빈곤선을, 그리고 y_j 는 빈곤가구 j의 소득을 의미하게 된다.

계적 방법으로서 그 관계정도를 지수로 나타내는데 연구의 인과성을 밝히기에 앞서 이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사용되며 이 지수를 상관계수라고 한다. 즉, 상관계수는 변수들의 방향성과 정도를 파악하는 계수로서 변수 또는 측정치 간의 일치도, 공통성, 동질성의 정도를 양적으로 나타낸 지수를 의미한다(한승준,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변수들 간에 얼마나 밀접한 선형관계를 가졌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선형결합의 정도와 관련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모형의 경우 조절효과로 인하여 중요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변수간의 높은 상관에 의한 다중공선성의 문제이다. 즉,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을 경우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수에 평균값을 빼주는 방식의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평균중심화 방법을 사용한 결과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성의 문제가 해결 되었으며 회귀분석의 가정인 독립변수간의 상호독립성의 충족과 함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음의 분석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난다.

<표 5>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²⁹⁾

	(1)	(2)	(3)	(4)	(5)	(6)	(7)	(8)	(9)	(10)	(11)
소득지수(1)	1.00										
ln(양자간 원조)(2)	-0.387**	1.00									
ln(다자간 원조)(3)	-0.440**	0.695**	1.00								
부패지수(Corr)(4)	0.046	-0.036	-0.031	1.00							
ln(직접투자)(5)	0.312**	0.346**	0.130**	0.028	1.00						
인플레이션(6)	-0.046	-0.003	-0.008	-0.060†	0.031	1.00					
산업부가가치(7)	0.323**	-0.129**	-0.298**	-0.020	0.428* *	0.178**	1.00				
정치적안정성(8)	0.402**	-0.375**	-0.408**	0.008	-0.099†	-0.133**	0.041	1.00			
도시화(9)	0.544**	-0.134**	-0.244**	0.065	.346**	0.013	0.255**	0.215**	1.00		
Multilateral*Corr(10)	-0.011	0.035	0.059†	0.035	-0.037	0.015	-0.073*	-0.002	-0.034	1.00	
Bilateral*Corr(11)	-0.026	-0.014	0.032	-0.006	-0.049	0.037	-0.060†	-0.036	-0.031	0.689	1.00

**p.<0.01, *p.<0.05, †p.<0.1

29) 종속변수가 빈곤갭과 빈곤율을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역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평균중심화 기법을 통하여 해결되었으며 그 분석결과는 <표 5>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생략하였다.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각각의 분석모형에 따라 종속변수인 수원국 빈곤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6>은 소득지수, 빈곤갭, 빈곤율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본모형으로 모형1과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2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각각의 모형을 하우스만 검증(Hausman test)을 통하여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RE)이 더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의 모형이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지수, 빈곤갭, 빈곤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각각의 모형을 확률효과 모형을 통하여 각 변수와 빈곤지수와 관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득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결과 모형1의 경우, 양자간 원조는 소득지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다자간 원조가 수원국의 소득지수의 향상에 정(+)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p<0.01$). 즉 다자간 원조를 통한 지원이 수원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의 상승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조를 통한 자본의 유입이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Papanek(197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Levy(1988) 또한 공적 개발원조가 수원국의 1인당 소득에 있어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 바와 그 연구결과가 같다. 그리고 소득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경우 Burnside & Dollar(2000), Rajan & Subramanian(2005), Minoiu(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양자간 원조보다 다자간 원조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부패수준이 높을수록 수원국의 1인당 평균소득에 부(-)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p<0.01$). 일반적으로 부패는 빈곤해소에 큰 장애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 있어 부패의 문제를 대처할 효과적인 대안책의 부재와 함께 이러한 부정적 기능이 빈곤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Dincer & Gunalp(2008), You & Khagram(2005)의 연구와 그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의 변수로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많을수록 소득지수에 정(+)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p<0.01$). 외국인 직접투자자로 인한 경제발전이 곧 빈곤감소라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소득지수에 부(-)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5$). 그리고 산업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인 경우 수원국의 소득지수에 정(+)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p<0.05$). 산업으로 인한 생산력 증대가 곧 빈곤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도시화 인구가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지수에 정(+)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다음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 2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양자간 원조와 부패의 상호작용결과 $p<0.05$ 수준에서 부(-)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본 모형에서는 양자간 원조가 빈곤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부패한 국가의 양자간 원조는 수원국의 소득향상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eta = -82.651$). 그리고 다자간 원조와 부패와의 상호작용 분석결과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자간 원조에 있어서 부패가 부정적 요인을 만들어 내어서 빈곤감소의 효과를 완화시켰음을 의미하고 그 영향력($\beta = 285.446 \rightarrow 71.157$) 또한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러

한 연구 결과에서 보면 Economides et al.(2004)이 제시한 바와 같이 원조가 수원국의 빈곤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러한 원조 과정에서의 부패가 원조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을 지지하게 된다.

<표 6> 회귀분석결과

독립 변수		소득지수(1인당 GNI)		빈곤갭(poverty gap)		빈곤율(poverty rate)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ODA	In_양자 (Bilateral)	-104.955 (71.621)	-81.306 (70.652)	-2.512** (.547)	-1.603** (.580)	-.004** (.001)	-88.96† (.875)
	In_다자 (multilateral)	285.466** (71.621)	293.152** (56.756)	.394 (.469)	.247 (.523)	-.002 (.002)	-.346 (.627)
부패지수(Corr)		-500.668** (57.246)	-9.379 (40.671)	1.532* (.686)	1.531* (.639)	.118 (1.065)	.646 (.548)
ln(직접투자)		324.577** (46.389)	322.348** (46.556)	-1.187** (.314)	-1.323** (.325)	-1.286** (.466)	-1.550** (.472)
인플레이션		-5.899* (2.596)	-5.592* (2.585)	.026 (.038)	.028 (.039)	.056 (.041)	.047 (.042)
산업부가가치		26.340* (11.984)	21.242† (12.306)	-.098 (.073)	-.074 (.073)	-.103 (.132)	-.085 (.137)
정치적 안정성		103.107 (133.13)	150.686 (131.975)	-.541 (.943)	-.606 (.915)	-1.266 (1.313)	-2.105 (1.374)
도시화		169.297** (14.264)	184.124** (15.018)	-.075 (.061)	-.081 (.062)	-.720** (.121)	-.759** (.123)
Bilateral*Corr			-82.651* (42.604)		-.935 (.667)		-.262 (.566)
Multilateral*Corr			71.157† (40.879)		1.174* (.563)		.545 (.662)
_cons		-6991.814** (1239.174)	-10111.74** (1021.131)	41.194** (8.809)	43.411** (6.420)	87.929** (13.674)	91.527** (10.014)
N		778	778	116	116	189	189
R^2	within	.396	.399	.472	.471	.414	.341
	between	.347	.291	.295	.295	.301	.324
	overall	.353	.305	.361	.373	.251	.297
wald chi-square		456.79**	436.53**	70.30**	68.61**	104.07**	88.96**

**p.<0.01, *p.<0.05, †p.<0.1

빈곤갭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결과 모형 1의 경우 양자간 원조가 빈곤갭에 있어서 부(-)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양자간 원조를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빈곤수준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반하여 다자간 원조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양자간 원조가 국가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오히려 다자간 원조가 부정적이거나 효과가 없다는 결과의 측면을 지지하고 있다(Ram, 2003). 그리고 Heady(2007) 역시 냉전시기 이후 56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양자간 원조가 더욱 효과적임을 발견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게 된다. 그리고 역시 국가의 부패수준이 높을수록 수원국의 빈곤수준에 있어서 부(+)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p<0.05).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패한 국가의 관료의 비효율적성이

국가의 빈곤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밖에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빈곤의 완화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p<0.01$).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모형 2의 분석결과를 보면, 기본모형에서 다자간 원조가 빈곤수준의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다자간 원조가 공여 되는 부패한 수원국가에 있어서 빈곤완화에 $p<0.05$ 수준에서 정(+)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eta = 1.174$). 즉, 부패한 국가의 다자간 원조가 오히려 빈곤완화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서 논의할 만한 것은 양자간과 다자간 원조의 효과성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원조의 형태와 국가의 부패수준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빈곤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 있어서 모형1의 경우 역시 다자간 원조보다는 양자간 원조가 절대적 빈곤지수인 빈곤율의 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p<0.01$). 그리고 부패수준은 빈곤율의 감소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정(+)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그 밖의 변수로서 유의미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빈곤율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이와 함께 도시인구가 높은 국가일수록 절대적 빈곤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도시에서 사는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절대적 빈곤에 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회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정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7>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7> 가설 검정 결과

가설번호	가설내용			유의성	검정결과
가설 1	공적개발원조(ODA)	→	빈곤	△	일부채택
1-1	양자간 원조(Bilateral Assistance)	→	소득지수	×	기각
			빈곤갭	○	채택
			빈곤율	○	채택
1-2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ssistance)	→	소득지수	○	채택
			빈곤갭	×	기각
			빈곤율	×	기각
가설 2	부패(Corruption)	→	빈곤	△	다수채택
			소득지수	○	채택
			빈곤갭	○	채택
			빈곤율	×	기각
가설 3	공적개발원조(ODA)*부패(Corr)	→	빈곤	△	일부채택
3-1	양자간(Bilateral)*부패(Corr)	→	소득지수	○	채택
			빈곤갭	×	기각
			빈곤율	×	기각
3-2	다자간(Multilateral)*부패(Corr)	→	소득지수	○	채택
			빈곤갭	○	채택
			빈곤율	×	기각

V.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에 대하여 논의하고 부패한 국가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ODA의 관점은 보편적으로 빈곤국의 빈곤문제를 완화해주는 것으로서 그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에 따라 ODA가 오히려 빈곤국의 빈곤수준을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패가 만연하고 제도적인 체계가 잘 잡히지 않은 국가일수록 공여국으로 부터의 ODA가 관료에 의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들의 지대추구적 성향으로 인하여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즉 부패한 국가일수록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 사실이며 ODA의 효과 또한 반감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결과 유의성 있는 가설에 따르면 ODA가 빈곤수준을 완화시켜 주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수원국의 부패수준이 빈곤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부패한 국가에 있어서의 ODA는 그 효과가 감소되는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과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따라 정책적 제언을 할 것이다.

첫째, ODA가 수원국의 빈곤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가설은 다수 채택이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의 공적개발원조는 긍정적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ODA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ODA는 그 공여주체와 그 유형에 따라 그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본 연구와 그 결과의 유사성이 높다. 즉, 다자간 원조와 양자 간 원조에 있어서의 효과성과 유상과 무상원조에 있어서의 효과성이 연구의 시기별, 국가 대상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자간 원조와 양자간 원조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기능으로 제공되었으며, 특정 시점과 특정 효과를 위해 어느 한쪽이 선호될 수 있지만 그 한쪽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우월성을 지니는 원조 형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둘째, 부패가 수원국의 빈곤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역시 다수 채택되었다. 부패는 일반적으로 공적영역에 있어서 경제성장을 왜곡하게 되며 결국 국가의 빈곤의 악화로 이르게 하게 되는데, 이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모니터링 할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유한 자는 그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얻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Dabla & Wade, 2002). 따라서 부패와 빈곤의 인과적 관계의 실증적 검정을 통하여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반부패 전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제기할 수 있다. Negin et al.,(2010) 역시 빈곤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서 반부패 전략을 제기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패를 줄이기 위한 심각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한 부정부패의 척결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³⁰⁾

셋째, 수원국의 빈곤에 있어서 ODA와 부패는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Kaufmann et al. (1999)은 거버넌스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휘되는 권위에 의한 제도이며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는 통합의 방식으로써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좋은 정책을 실행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능력을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제도에 대한 시민의 존중은 국가와 국민사이의 경제적·사회적 상호작용을 더욱 활발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³⁰⁾ 개발도상국에서의 부패는 원조의 분배에 대한 효과성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부패한 국가의 정부관료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금전적 원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보다는 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Schudel, 2008).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원국의 ODA는 잠재적으로 수원국의 거버넌스에 해가되고 부패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ODA의 수혜는 관료적 성과와 부패수준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한다(Knack 2001; 2004; Knack & Rahman 2007). 이러한 논의는 Schudel(2008)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일반적으로 공여국들은 수원국의 부패수준이 높을 경우 원조를 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원국이 덜 부패한 곳에 그 원조액을 배당하는 경향이 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ODA의 효과성이 수원국에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상호의존을 요구하는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제도의 확립과 함께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그리고 그들간의 의사소통과 파트너십 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하는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국내에서 국가대상의 ODA와 빈곤 그리고 부패와의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ODA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학자들마다 다르며 실증적 연구 결과 역시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ODA가 빈곤완화에 긍정적 측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수원국의 부패수준이 원조 효과에 있어서 중요한 조절 변수가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 있어서 ODA를 통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특수성과 상황적 맥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빈곤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측면의 논의와 국가의 보다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수원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제언의 연구가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다.

30) Negin(2010)은 부패와 빈곤과 싸우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국가의 책임성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는 정치, 경제, 사회적 배제가 빈곤층에 더 많이 나타나므로 부패로 인한 희생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31) 법과, 규칙, 그러한 과정에서의 투명성의 부족은 부패를 야기하게 된다. 규칙이 종종 분명하지 않거나 오직 훈련된 법률가만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의 구체적 서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용이하지 않다(Tanzi, 1998).

참 고 문 헌

- 고가영·이근태. 2012. 저부가가치에 물리는 창업 자영업 경기 더 악화시킨다 . LGERI 리포트. 17-26. LG경제연구소.
- 구정우·김대욱. (2011). 세계사회와 공적개발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7-2007. 한국사회학 45(1):153-190.
- 김정현. (2008).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에 관한 연구동향. 해양수산. 34-49
- 김태은 외. (2008). 전자정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횡단 및 패널자료를 통한 증거. 한국행정학보. 42(1):293-321.
- 김관석 외. (2010). 세계빈곤의 현황과 과제. 서울: 조명문화사.
- 민인식·최필선. (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 박홍식. (2011). 국가부패 수준에 대한 특수주의와 투명성의 영향. 한국부패학회보. 16(4): 1-24.
- 손혁상·최정호. (2008). 한국의 대 아세안(ASEAN) 공적개발원조(ODA)정책: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의 이중주. 동남아시아연구. 18(2):137-171.
- 설진배. (2011). 공공서비스 조직의 관리적 특성이 조직성가에 미치는 영향 : 중학교 조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명섭. (2004). 빈곤해소에 있어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과 효과에 관한 연구. 행정학석사논문. 연세대학교.
- 안국신 외. (1995). 우리나라 계층별 소득분배의 결정요인 분석. 계량경제학보 6: 57-86.
- 연세대학교 빈곤문제 국제개발 연구원. (2013). 빈곤의 사회학. 서울: 사문난적.
- 이경아·홍기식. (2012). 공적개발원조가 수혜국의 수출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33(2):43-72.
- 이계우. (2011). 공적개발원조 배분정책과 실천: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 한국개발연구. 33(4): 49-83.
- 이병희·강기우. 2008.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 이순학·이홍식. (2012). 공적개발원조(ODA)는 수출을 진작시키는가?: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국제경제연구. 18(3):105-128.
- 임채홍 외. (2011). 절대적, 상대적 빈곤수준의 결정요인 및 격차 비교분석: 2005-2007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5(4):77-110.
- 정미경·김동열. (2010).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 분야 및 행위자별 유형분석: 아시아지역 중심. 아시아연구. 13(2):111-142.
- 정동원. (2008). 인도네시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및 기여도 평가. 아시아연구, 10(3):249-267.
- 주해연. (2012).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세현 외. (2007). 농가 빈곤규모와 빈곤농가의 성격. 농업경영정책연구. 34(4):722-750.
- 홍승기·김충호. (2011).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3):119-128.

- Alesina, Alberto, and David Dollar.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33–63.
- Bobba, Matteo and Powell, Andrew. (2007). Aid and Growth: Politics Matters. IDB Working Paper No. 503
- Boone, Peter (1996). Politics and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European Economic Review* 40 (2):289–329.
- Burnside, Craig and David Dollar. (2000). Aid, Policies,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90(4):847–868.
- Cassen, Robert. (1994). Does Aid work .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 Chetwynd, E., Chetwynd, F., & Spector, B. (2003). Corruption and poverty: A review of recent literature. Final report. Washington, DC: Management Systems International.
- Chowdhury, A. and G. Mavrotas. (2003). DI and Growth: What Causes What? Sharing Global Prosperity–Development Conference, Helsinki: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WIDER).
- Dabla-Norris, E., and Wade, P. (2002). Production, Rent Seeking and Wealth Distribution.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Dincer, C., and Gunalp, B. (2008). Corruption,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s No. 54.
- Djankov, Simon., Jose G. Montalo and Marta Reynal-Querol. (2004). Helping the Poor with Foreign Aid: The Grant vs. Loans Debate. World Bank.
- Dunning, Thad. 2004. Conditioning the Effects of Aid: Cold War Politics, Donor Credibility, and Democracy in Africa.”*International Organization* 58(2): 409–423.
- Economides, George, Sarantis Kalyvitis, and Apostolis Philippopoulos, (2004). Do Foreign Aid Transfers Distort Incentives and Hurt Growth? Theory and Evidence from 75 Aid-Recipient Countries, CESIFO Working Paper No. 1156, Athens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 Athens.
- Finn Tarp and Peter Hjertholm, (2000). *Foreign Aid and Development : Lessons Learned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Routledge
- Gillpin, R.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irishankar N., Hammergren, L., Holmes, M., Knack, S., Levy, B., Litvack, J., Manning, N., Messick, R., Rinne, J., and Sutch, H. (2002). *Poverty Reduction Strategy Sourcebook*, Chapter 8, Governance. World Bank, Washington D.C.
- Goldsmith, A. A. (2001). Foreign Aid and Statehood in Africa. *International Organisation* 55(1): 123–8.
- Gupta, S., Davoodi, H., and Alonso Terme, R. (1998). Does Corruption Affect Income Equality and Poverty?. IMF Working Paper 98/76.
- Hansen, Henrik and Finn Tarp. (2001). Aid and Growth Regressions, *Journal of*

- Development Economics. 64(2):547-570.
- Hansen, Henrick and John Rand. 2006. On the Causal Links Between FDI and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Economy*, 29(1):21-41.
- Headey, Derek. (2008). Geopolitics and the effect of foreign aid on economic growth: 1970-200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0(2): 161-180.
- Hook, Steven W. (1995). *National Interest and Foreign Aid*. Boulder, CO: Lynne Rienner.
- Iimi, A., & Ojima, Y. (2005). *Natural Resources, Economic Growth and Good Governance: An Empirical Note*. Working Paper.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Kakwani, Nanak. (2000).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An Empirical Analysis. *Asian Development Review*,. 18(2).
- Kaufmann, Daniel. (1997). Corruption: The Facts. *Foreign Policy*. 107:114-131.
- _____. (1999). Anti-Corruption Strategies: Starting Afresh? Unconventional Lessons from Comparative Analysis in R. Stepenburst and S.J. Kpuneh (ed). *Curbing Corruption*. The World Bank.
- Knack, Stephen. (2001). Aid Dependence and the Quality of Governance: Cross-Country Empirical Tests. *Southern Economic Journal* 68(2): 310-329.
- _____. (2004). Does Foreign Aid Promote Democra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8(1): 251-66.
- Knack, Stephen, and Aminur Rahman. (2007). Donor Fragmentation and Bureaucratic Quality in Aid Recipient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3(1):176-197.
- Kundu, A & Smith, T.E. (1983). An Impossibility Theorem on Poverty Indic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4(2): 423-434
- Levy, V.,(1988). Aid and Growth in Sub-Saharan Africa: The Recent Experience. *European Economics Review*. 32:1777-1795.
- Lumsdane, David Halloran. (1993). *Moral Vis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Foreign Aid Regime, 1949-89*.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rgenthau. H. (1962). A Political Theory of Foreign Ai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
- Mosley, P., J. Hudson and S. Horrell. (1987). Aid, the Public sector and the Market in Less Developed Countires. *Economic Journal*. 97: 616-641.
- Negin, Abd Rashid & Nikopour, (2010),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Poverty: A Panel Data Analysis. Munich Personal RePEc Archive(MPRA). Working Paper.
- Odedokun, M.,(2004). Multilateral and Bilateral Loans versus Grants : Issues and Evidence. *World Economy*.
- Ogboru, I. (2010). The Impact of Corruption on Poverty Reduction Efforts in Nigeria. University of Jos Institutional Repository. Social Sciences(Economics) URI: <http://dspace.unijos.edu.ng/handle/10485/1254>
- Ooms, T et al., (2006). Poverty and urbanization. Joint Urban Studies Center.

- Paldam, M. (2002). The Big Pattern of Corruption, Economics, Culture and the Seesaw Dynamic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8:215-240.
- Papanek, G., (1973). Aid, Private Foreign Investment, Savings and Growth in Less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120-130.
- Rainwater, Lee (1974), *What Money Buys: Inequality and the Social Meanings of Income* (New York: Basic Books).
- Rajan, Raghuram and Arvind Subramanian. (2005). Aid and Growth: What Does the Cross-Country Evidence Really Show?"IMF Working Paper 05/127, Washington, D.C.
- Ram, Rati. (2003). Roles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 in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Kyklos*. 56(1): 95-110.
- Ravallion, M. (2009). *On the Urbanization of Poverty*. World Bank. Washington, D.C. Processed.
- Rose-Ackerman, S. (1978). *Corruption: A Study in Political Economy*. NY: Academic Press.
- Rowntree B Seebohm. (1901).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London: Macmillan.
- Sawada, Kohoma and Kono. (2004), *Aid, Policies and Growth : A Further Comment*. University of Tokyo.
- Schraeder Peter J et al.,(1998). Clarifying the Foreign Aid Puzzle: A Comparison of American, Japanese, French, and Swedish Aid Flows. *World Politics*. 50: 294-323.
- Schudel, C. J. W (2008). Corruption and Bilateral Aid: A Dyadic Approach.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2(4): 507-526
- Tanzi, Vito. (1998). Corruption around the World: Causes, Consequences, Scope, and Cures. *IMF Staff Papers* 45(4): 559-594.
- Tavares, Jos . (2003). Does Foreign Aid Corrupt? *Economics Letters*. 79(1): 99-106.
- Townsend, Peter.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Allen Lane and Penguin.
- Transparency International homepage: <http://www.transparency.org/>.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1995-2006, various data files.
- World Bank. (1998). *Assessing Ai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ou, J.S., Khagram, S. (2005). A Comparative Study of Inequality and Corrup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1):136-57.

투고일자 : 2013. 08. 02

수정일자 : 2013. 09. 13

게재일자 : 2013. 09. 26

국문초록

공적개발원조(ODA), 부패 및 그 상호작용이
국제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DA 수원국을 중심으로

김홍주(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본 연구는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수원국의 빈곤 감소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부패한 국가의 원조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와 수원국의 부패지수를 중심으로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이 변수들이 빈곤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과연 수원국의 빈곤완화의 효과를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교적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다자간 원조의 경우 수원국의 빈곤수준을 나타내는 일인당 GNI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양자간 원조는 수원국의 빈곤갭과 빈곤율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수원국의 부패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GNI와 빈곤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조의 효과에 있어 수원국의 높은 부패수준이 그 효과를 감소시켰음을 발견하였다. 즉 부패한 국가의 ODA는 그 효과가 감소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의 기각여부에 따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적개발원조(ODA), 부패, 빈곤